

아편전쟁이후 중화프로그램의 위기 및 그 문제해결과정에 관한 연구

박 홍 서

(한국외대 중국어과 강사)

차 례

- I. 서론
- II. 중화프로그램의 개념 및 위기
- III. 중화프로그램의 퇴행적 문제변환
- IV. 중화프로그램의 붕괴
- V. 결론

과학은 항상 문제로부터 시작해 문제로 종결된다.
- 칼포퍼¹⁾

I. 서론

본 논문의 목적은 아편전쟁이후 5·4운동까지 발생하였던 중국의 체제위기에 대한 청조 및 엘리트계층의 대응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과학철학의 주요개념중 하나인 “연구프로그램(research program)” 개념을 도입해 동시기 중

1) Karl R. Popper, *The Myth of the Framework*, ed., M.A. Notturmo, London: Routledge, 1997, 155쪽.

국의 대응과정을 문제해결을 위한 중국적 연구프로그램(이하 중화프로그램)의 자기 보정 과정으로 가정하고 그 구체적 설명을 시도한다.

중국근대사를 “문제의 발생 및 그 해결”이란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것은 기존의 도식적인 시대구분론에 입각한 연구에서 탈피해서 중국근대사를 새로운 기준으로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본 논문은 중국근대사를 맑스적 시대구분(고대노예, 중세봉건, 근대자본)²⁾ 혹은 근대화론적 시대구분(전통과 근대)에 따른 분석³⁾에서 벗어나 당시 중국이 직면한 문제가 무엇이며 그것의 해결과정이 어떠한가를 연구프로그램이란 과학철학적 개념을 통해 설명하려는 것이다. 사실, 상술한 서구적 의미의 맑스적 혹은 비맑스적(근대화론) 시대구분론이 과연 중국사에 적실하게 적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의문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은 서구국가들과 다르게 강력한 황제권력 및 향신으로 대표되는 관료계급, 그리고 명확한 자생적 자본주의 단계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두기의 지적대로 사회구성체의 성격을 밝히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은채 다른 기준을 차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⁴⁾ 이런 의미에서 본 논문은 19세기 중국의 상황을 새로운 문제의 발생 및 그에 대한 청조의 해결과정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자연과학에서 새로운 문제의 발생은 경험적 사실이 기존이론과 부합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즉, 현존이론과 부합하지 않는 이상사례(anomalies)가 도출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⁵⁾ 이와 같은 논리를 19세기 중국의 상황에 비유한다면, 동시기 “서구의 충격”과 이로 인해 유발된 중국의 체제위기는 중화프로그램이란 전통적 이론틀이 해결할 수 없는 이상사례의 출현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당시 중국

2) 예를 들어, 모택동이 주장하는 중국의 “자본주의 맹아론”은 중국사를 맑스의 보편적 시대구분론에 근거치우려는 일례라고 할 수 있다. 田中正俊, 「중공에서의 자본주의맹아론」, 민두기 편, 「중국사시대구분론」,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4, 266쪽; 「毛澤東選集」, 北京: 人民出版社, 1952, 第二卷, 589쪽.

3) 근대화론은 중국의 전통적 유교와 서구적 근대성은 근본적으로 양립불가능하다고 전제하며, 따라서 중국의 근대화는 전통과 단절하고 서구적 가치를 수용할 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근대화론에 입각한 중국근대사 연구의 개관에 대해서는 Paul A. Cohen, *Discovering History in Chin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4, 2장 참조.

4) 이에 대해서는 민두기, 「중국사 시대구분론의 사회적 배경과 그 의의 및 전망」, 민두기 편, 「중국사시대구분론」, 19쪽.

5) Popper, *The Myth of the Framework*, 156쪽.

정부 및 사회엘리트 계층은 중화프로그램에 대한 일련의 자기보정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이론과 실제간의 괴리를 최소화하려 했다고 본 논문은 가정한다.

우선, 본 논문은 2장에서 연구프로그램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이 개념을 통해 중화프로그램의 실체에 대해 정의한다. 3장에서는 아편전쟁이후 신해혁명시기까지 일련의 역사적 상황을 중화프로그램의 자기보정과정이란 관점에서 설명하고, 그러한 자기보정과정이 성공적인가의 여부를 판별할 것이다. 4장에서는 중화프로그램의 자기보정시도가 결국 실패하고 혁명파의 등장과 이에 따른 중화프로그램의 제도적, 사상적 붕괴과정을 설명할 것이다.

II. 중화프로그램의 개념 및 위기

1. 연구프로그램의 개념

연구프로그램이란 개념은 합리주의 과학철학자인 라카토스(Imre Lakatos)에 의해 처음으로 정립되었다. 그에 따르면, 연구프로그램은 하나의 “중핵(hard core)”을 공유하되 다양한 보조가설들의 가감으로 변형되어 있는 이론들간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라카토스는 연구프로그램의 개념을 통해 실제 과학사의 전개과정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고자 하였는데, 토마스쿤(Thomas S. Kuhn)과 동일하게 그 역시 과학사를 개별이론의 단순한 반증과정이 아니라 위기에 직면한 기존이론의 자기보정과정으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 이론은 그에 반하는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즉시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사례를 보다 잘 설명하는 또 다른 대안이론이 등장할 때까지는 자기보정을 계속 시도한다는 것이다.⁶⁾

6) “연구프로그램”의 개념에 대해서는 Imre Lakatos, “Falsification and the Methodology of Scientific Research Programmes,” in Imre Lakatos and Alan Musgrave, eds., *Criticism and the Growth of Knowledge*,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91-196쪽 참조. 한편, 쿤의 “패러다임(paradigm)” 개념은 라카토스의 연구프로그램 개념과 의미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쿤은 라카토스에 비해 패러다임의 변환과정에 있어 과학자들의 심리적 요인을 강조한다는 점이 대비된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프로그램과 패러다임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한다. 패러다임에 대한 쿤의 논의는 Thomas S. Kuhn, *The Structure*

한편, 라카토스에 따르면 이와 같은 이론의 보정시도는 “금지된 문제해결법(negative heuristic)”과 “허용된 문제해결법(positive heuristic)”이라는 2가지 방법론적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금지된 문제해결법은 이상사례의 발생시 연구프로그램의 중핵을 수정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규칙이다. 따라서 만약 문제해결을 위해 중핵을 수정한다면 그것은 또다른 연구프로그램의 등장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중핵을 둘러싸고 있는 “보호대(protective belt)”를 변형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허용된다.(허용된 문제해결법) 즉, 다양한 보조가설 및 초기조건의 변환 등을 통해 중핵을 수정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것이다.⁷⁾

만약 이와 같은 두가지 규칙을 준수하여 수정된 이론(a)의 문제해결능력(설명력)이 전이론(a-1)보다 증가하고, 또한 그것이 경험적으로 확인된다면 그들의 집합체인 연구프로그램은 “진보적 문제변환(progressive problemshift)”을 했다고 가정되며, 반대일 경우 “퇴행적 문제변환(degenerative problemshift)”을 했다고 가정된다. 일반적으로 퇴행적 문제변환의 특징은 위기에 직면한 이론이 검증가능한 방식의 이론적 수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임시방편적(ad hoc) 처방으로 그 문제를 회피한다는 것이다.⁸⁾

이와 같은 과학철학의 연구프로그램 개념은 어떻게 중국근대사의 전개과정에 적용될 수 있을까? 우선 다음절에서는 중화프로그램의 개념을 정의내리고 그 위기에 대해서 설명한다.

2. 중화프로그램의 개념 및 위기

중화프로그램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화프로그램의 중핵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페어뱅크가 제시하는 소위 “중국적 세계질서(Chinese world order)”라는 개념은 중화프로그램의 중핵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중국적 세계질서는 19세기 서구의 충격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설정하는 “구성원칙(organizing principle)”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⁹⁾ 일반적으로 서구 국제관계의 구성원칙이 무정

of Scientific Revolution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1974, 77-78쪽 참조.

7) Lakatos, “Research Programmes.” 132-38쪽.

8) 앞의 글, 117-19쪽.

부 상태에 위치한 주권국가간의 동등한 관계를 의미하는데 반해 중국적 세계질서의 구성원칙은 국가간 “위계”를 가정한다는 측면에서 그 독특한 성격을 갖는다. 즉, 개별 국가들은 주권을 갖는 동등한 국가로 간주되지 않으며, 중국을 종주국으로 인정하고 자국의 내치와 외교를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국제관계라는 것이다.¹⁰⁾ 따라서, 중국적 세계질서의 사상적, 국내정치적, 그리고 국제적 표현양태들을 중화프로그램의 중핵으로 전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다면, 중화프로그램의 중핵은 1) 사상적인 측면에서 유교에 기반하고, 2) 국내정치적 측면에서 황제중심의 봉건제를 유지하며, 그리고 3)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중국과 주변국가간의 조공체제(tributary system)라고 볼 수 있다. 우선, 사상적인 측면에서 중화프로그램은 유교의 삼강(三綱: three bonds)에 근거해 사회구성원들 간(군신간, 부자간, 부부간)의 위계를 기본전제로 상정한다. 전자는 후자에 대해 우월한 위치에 있는 반면 후자에 대한 자혜의 의무 역시 갖음으로써 상호간의 자발적 조화는 최고의 덕목으로 가정된다.¹¹⁾

한편, 이와같이 구성원간 위계성 및 반평등성을 가정하는 중화프로그램의 사상적 기반은 국내정치의 측면에서 강력한 황권중심의 정치체제와 국제정치에 있어 조공관계로 현실화된다.¹²⁾ 우선 국내정치적 측면에서 중국의 황제는 천하(天下: all-under-Heaven)를 관장하는 천자(天子: Son of Heaven)로 가정되며, 따라서 정치, 경제, 군사, 사회영역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최고의 지위를 점유한다. 역사적으로 최고지도자의 정치권력을 천자의 개념을 통해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주(周)시대로부터 기인하며, 최초의 통일국가인 진(秦)시대에 이르러 황제의 개념은 상제와 대비되는 지상의 신으로서 더

9) 중국적 세계질서의 개념 및 정의에 관해서는 John. K. Fairbank, "A Preliminary Framework," in John. K. Fairbank, ed., *The Chinese World Orde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2-14쪽; 梁伯華, 『近代中國外交的巨變』, 香港: 商務印書館, 1990, 11-34쪽 참조.

10) 서구 국제관계의 원칙에 관해서는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79, 88-89쪽 참조. 서구적 주권국가체제와 위계적 국가체제(suzerain-state system)의 구분에 관해서는 Hedley Bull, *The Anarchical Society: A Study of Order in World Politics*, London: The Macmillan Press, 1979, 10-11쪽 참조.

11) Fairbank, "A Preliminary Framework," 5-6쪽.

12) Mark Mancall, "The Ch'ing Tribute System: an Interpretive Essay," in John. K. Fairbank, ed., *The Chinese World Order*, p.65.

욱 격상되기에 이른다.¹³⁾

반면, 조공체제는 중화프로그램의 국제관계를 규정하는 핵심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공관계의 지역적 범위는 1) 조선, 베트남과 같이 중국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소위 “중화지역(sinic zone),” 2) 북방 유목민과 같은 유교문화를 공유하지 않지만 조공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아시아 내지역(Asian inner zone),” 그리고 3) 중국의 문화를 공유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무역관계시에만 조공관계가 형성되는 소위 “외부의 오랑캐(外夷) 지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¹⁴⁾ 이와같은 지역적 층위로 구분되는 조공관계를 통해 중국은 주변국가에 대한 자국의 정치, 문화상 우월적 지위를 확약받고 그 대가로 조공객체에 대해 정치적 후원(책봉, 승인)을 수여하였던 것이다. 물론, 조공체제의 이론과 실체가 항상 부합된 것은 아니었다. 즉,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중국의 국가이익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공체제가 이용되었던 측면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청조의 경우에서 보여지듯 중국본토를 차지한 이민족 정권 역시 조공체제를 수용하였다는 사실은 그것의 실재성을 함의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¹⁵⁾

한편, 19세기 서구제국과의 조우로부터 도출된 문제들은 상술한 전제들을 중핵으로 하는 중화프로그램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이상사태였다. 즉, 중화프로그램의 기본가정들을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서구의 등장 및 1,2차 아편전쟁을 통해 증명된 서구의 군사적 우월성은 중화프로그램내의 문제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대항프로그램이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였던 것이다. 즉, 19세기 서구의 충격은 단순히 청조의 체제위기라기 보다는 중화주의에 대한 문명사적인 위협이었던 것이다.¹⁶⁾

물론, 코헨(Paul Cohen)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서구의 충격만을 중국근대사의 동인으로 과장하는 것은 중국의 내재적 요인들을 무시한다는 측면에서 비판받을 수

13) 이춘식, 『중화사상의 이해』, 서울: 신서원, 2003, 173-77쪽.

14) Fairbank, "A Preliminary Framework," 2쪽.

15) 신승하, 『근대중국의 서양인식』, 서울: 고려원, 1985, 17-18쪽. 한편, 조공체제의 현실주의적 관점은 Lien-sheng Yang, "Historical Notes on the Chinese World Order," in John. K. Fairbank, ed., *The Chinese World Order*, pp. 20-22; 조병한 외, 『청대 중국의 대통일적 중화체제와 대외인식의 변동: 아편전쟁시기까지』(주제토론), *아시아문화*/ 10호, 49-50쪽 참조.

16) 중국의 문명사적 위기에 대해서는 Ishwwer C. Ohja, *Chinese Foreign Policy in an Age of Transition*, Boston: Beacon Press, 1971, 26-50쪽; 서진영, 『중국혁명사』,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2, 40쪽 참조.

있으나 그 역시 인정하듯 서구 제국과의 조우가 중국에게 명확히 새로운 문제 및 그것을 해석하는 새로운 맥락을 제공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¹⁷⁾ 모택동 역시 아편전쟁 이전 중국의 자생적인 자본주의 맹아론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등장이 중국내 사회구조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¹⁸⁾

이런 의미에서 청조말 발생하였던 내재적 문제들이 중화프로그램 변혁의 시발점이었는가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즉, 18세기부터 노출되기 시작한 청조관료체제의 비효율성, 팔기군 체제의 균열 및 백련교도의 난 이래 빈번히 발생한 농민들의 체제저항운동 등은 이전의 봉건왕조체제에서도 흔히 목도되는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봉건체제 변혁의 직접적 동인들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즉, 이와 같은 동인들은 서구의 충격이 초래한 새로운 맥락속에서 이해될때만 봉건체제 변혁에 대한 변인으로서의 적실성이 있는 것이다.¹⁹⁾

당시 중국의 일부 지식인 계층 역시 서구의 충격을 이전의 중국역사에 없었던 매우 새로운 상황으로 간주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아편전쟁을 “중국의 3천년 역사에 있어 미증유의 일(三千年未有之禍)”로 표현했던 위원(魏源)처럼 일부 석자층은 당시상황을 “변국(變局: changed situation)”으로 묘사하는데 있어 공감대를 형성하였던 것이다.²⁰⁾ 특히, 이와 같은 사국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1860년 2차 아편전쟁의 패배로 인해 더욱 확산되었다. 즉, 중화중심주의의 관성이 1840년 1차 아편전

17) Paul A. Cohen, *Discovering History in China*, New York, 196쪽. “충격-대응” 접근에 대한 코헨의 개설과 비판은 앞의 책, 9-55쪽 참조. 한편, 충격-대응 접근의 주장자는 패어뱅크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중국의 근대사를 이해하는데 중국의 전통사회에 대한 지식은 필수불가결하지만, 그렇다고 공자나 맹자 같은 고전만을 탐독한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오직 서구와의 접촉이라는 맥락에서 중국인들이 경험한 새로운 세력들을 이해할 때 가능하다.” Ssu-Yu Teng and John K. Fairbank, *China's Response to the West: a Documentary Survey 1839-1923*, New York: Atheneum, 1970, 2쪽.

18) 『毛澤東選集』, 589-90쪽.

19) 청조의 쇠퇴에 대한 내부적 동인들에 대한 논의로는 Susan Mann Jones and Philip A. Kuhn, “Dynastic decline and the roots of rebellion,” in John K. Fairbank and Denis Twitchett,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10 Late Ch'ing, 1800-1911, Part 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8, 107-62쪽; John K. Fairbank, Edwin O. Reischauer, and Albert M. Craig, *East Asia: Tradition and Transformation*,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73, 238-43쪽 참조.

20) 魏源, 『海國圖地』, 卷 24, 大西洋 2쪽; 신승하, 유장근, 장의식, 『19세기 중국사회』, 서울: 신서원, 2000, 40쪽에서 재인용.

쟁의 패배후에도 중국 엘리트층의 위기인식을 억제하였다면 보다 강력한 서구제국주의의 침입을 목도한 제 2차 아편전쟁후에는 점차 중화프로그램의 전반에 대한 위기의식이 심화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²¹⁾ 특히, 이와같은 중국 엘리트층의 대외적 위기의식은 옴(撫)의 난(1851-68)과 태평천국(太平天國)의 난(1851-64)과 같은 대내적 위기상황과 연계되면서 더욱 증폭되었다.²²⁾

이러한 의미에서 19세기 서구의 충격은 전통적인 중화프로그램이 해결할 수 없었던 명백한 이상사태였으며, 이와 같은 이론-실제간 부정합을 해결하기 위해 제세력들은 중화프로그램의 보정을 시도하게 된 것이다. 물론, 새로운 문제해결 방식은 중화프로그램의 중핵을 위배하면 안된다는 “금지된 문제해결법”과 중핵이외의 부분은 수정할 수 있다는 “허용된 문제해결법”을 적절히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추구되었다. III 장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전개한다.

III. 중화프로그램의 퇴행적 문제변화

19세기 충격으로 인해 전통적인 중국적 세계질서가 도전받게 되자, 청조 및 엘리트 계층은 서구기술의 도입과 같은 “임시방편적(ad hoc) 수정”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한다.²³⁾ 1860년대 시작된 양무운동, 청일전쟁 직후의 무술변법 및 의화단 운동 직후의 신정(新政) 등은 모두 중화프로그램의 자기보정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1) 2차 아편전쟁의 결과 서구제국의 정치, 경제적 침략의 범위가 1차 아편전쟁시기 보다 확대되었다. 2차 아편전쟁의 결과인 천진조약(1858)과 북경조약(1860)은 개항장 수의 확대, 북경에 외국공사 주재허용, 내지포교권 등을 규정함으로써 서구제국이 중국의 핵심내지까지 진출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중국엘리트들의 위기의식은 증폭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표교열, 「제1,2차 중영전쟁」, 서울대학교동양사학연구회 편, 『강좌 중국사 V』, 서울: 지식산업사, 1989, 55-64쪽 참조. 한편, 중국 식자층의 인식변화에 대해서는 Yen-P'ing, "Changing Chinese views of Western relations, 1840-95." in John K. Fairbank and Kwang-Ching Liu,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11 Late Ch'ing, 1800-1911, Part 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153-56쪽 참조.

22) Teng and Fairbank, *China's Response to the West*, 48쪽.

23) 앞의 책, 49쪽.

1. 양무운동의 추진 및 한계

서양에 관련된 사무를 의미하는 “양무(洋務)”는 제 2차 아편전쟁이전 사용되던 “이무(夷務: 오랑캐에 관련된 사무)”란 개념으로부터 변화된 것으로 이와 같은 변화는 2차 아편전쟁 이후 중국이 서구제국을 보다 대등한 의미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⁴⁾ 따라서, 1860년 북경조약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양무운동은 1차 아편전쟁시기 임칙서(林則徐)나 위원 등이 주장했던 “오랑캐의 장기에 대한 학습”과 같은 개인관료차원의 의견제기와는 달리 한층 발전된 부국강병책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양무파의 정치적 후견자였던 서태후가 신유정변(辛酉政變, 1860)을 통해 정치적 실권을 확보했다는 사실은 양무파의 입지가 크게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²⁵⁾

상술한 바와 같이 양무파의 개혁정책은 중화프로그램의 전형적인 자기보정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양무운동의 사상적 시원이 되었던 풍계분(馮桂芬)의 사상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풍은 자신의 저술인 『교빈려항의』(校邠廬抗議: Personal protests from the study of Jiaobin, 1861)에서 “중국의 윤리와 가르침을 근본으로 삼고, 부국강병을 위해 각국에서 사용되는 방법들로 보충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논리는 중화프로그램의 공고한 유지를 위해 2장에서 제시된 두가지 규칙들(금지된 문제해결법 및 허용된 문제해결법)을 충실히 준수하려는 태도였던 것이다.²⁶⁾

풍계분의 사상은 그후 양무파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으며, 결국 청일전쟁 직후 심수강(沈壽康) 및 장지동(張之洞) 등에 의해 “중학위체 서학위용(中學爲體西學爲用)”이라는 소위 “중체서용(中體西用)”으로 정식화되었다. 의심할 바 없이, 여기서 중학이란 유교에 기반한 전통의식 및 봉건적 정치경제 제도를 의미하였으며, 서학은 서양의 군사 과학기술 및 상공업 제도를 의미하였다. 이와 같은 구호도 역시 서구의 충격으로부터 초래된 중화프로그램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서양기술의 도입과 같은 보조가설을 도입하겠다는 의지가 명확히 나타나 있는 것이다.²⁷⁾

한편, 이와 같은 사상을 기반으로 증국번(曾國藩), 이홍장(李鴻章) 등을 중심으로

24) Yen-P'ing, “Changing Chinese views of Western relations,” 169쪽.

25) 신승하, 『중국근대사』, 서울: 대명출판사, 2000, 161-67쪽.

26) Teng and Fairbank, *China's Response to the West*, 52쪽; 校邠廬抗議 69쪽 (신승하 외, 『19세기 중국사회』, 41쪽에서 재인용)

27) 신승하 외, 『19세기 중국사회』, 43-44쪽.

한 한인관료들은 서태후의 지지하에 본격적인 양무운동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²⁸⁾ 이들의 주도하에 강남제조총국(江南製造總局), 복주선정국(福州船政局) 등과 같은 군수기업이 설립되었고 이를 통해 근대적 의미의 해군이 창설되었다. 뿐만 아니라, 소위 “관독상관(管督商辦)”의 형식으로 윤선초상국(輪船招商局), 상해기기직포국(上海機器織布局) 등이 건립되어 근대적 의미의 상공업 발전을 도모하였으며, 아울러 대규모 광산개발 및 철도·전신 부설을 추진하였다. 한편으로 동문관(同文館) 및 산학관(算學館) 등을 건립해 외국어 및 서구의 과학기술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도 하였다.²⁹⁾

그러나 이러한 의욕적인 양무운동에도 불구하고, 1870-90년대 발생했던 일련의 대외적 사건에서 확인된 중국의 취약성은 양무운동의 실패를 의미하였다. 특히, 19세기 말 유구, 베트남 및 조선에 대한 중국의 종주권 상실은 양무운동이 서구의 충격으로부터 기인한 중국적 세계질서의 위기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위기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즉, 양무운동은 중화프로그램을 퇴행적으로 변환시킨 것이다.

우선, 유구에 대한 종주권 상실은 양무운동의 실패를 암시한 최초의 사건이라 볼 수 있다. 유구는 원래 중국의 조공국이었으나 1608년 일본의 싸스마번의 원정을 당한 후 중국과 일본에 모두 조공하게 되었다. 명치유신 이후 유구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기도하던 일본은 표류하던 유구인이 대만인들에게 살해되자 그것을 구실로 1874년 대만을 침공하고 천진조약을 통해 청조로부터 유구에 대한 일본의 종주권을 암묵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결과 일본은 1879년 유구를 병합하고 유구의 중국에 대한 조공관계를 해체시킴으로써 이 지역에서의 세력확장을 도모하기 시작하였다.³⁰⁾

한편, 베트남은 프랑스와의 1862년 1차 사이공조약을 시발로 점차 중국의 조공체제에서 이탈하기 시작하였다. 이 조약을 통해 프랑스는 사이공을 포함한 북베트남 성들의 관할권 및 매콩강 유역의 통해권을 확보하는 등 영향력을 증대하다가 1874년 3월 제 2차 사이공 조약을 통해 베트남을 “자주독립국가”로 명시함으로써 중국의 대베

28) 이것은 양무파들이 통일된 연합을 형성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양무파들은 상호간 '분절'되어 있었거나 때로는 상호대립하기도 하였다. 또한 일본의 명치유신세력과 달리 중앙정치의 핵심적 실권을 장악하지도 못했으며, 지속적인 보수파들(淸議)의 반대에 직면해야 했다. 박혁순, 「양무운동의 성격」, 『강좌 중국사 V』, 171쪽.

29) 양무운동의 실체에 대해서는 신승하, 『중국근대사』, 170-83쪽 참조.

30) 최희재, 「중화제국질서의 동요」, 서울대학교동양사학연구소실 편, 『강좌 중국사 V』, 서울: 지식산업사, 1989, 208-12쪽.

트남 중주권을 부정하기에 이른다. 결국 베트남 문제를 둘러싸고 1883-85년에 벌어진 청-불 전쟁의 결과 중국은 베트남에 대한 프랑스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越南新約: 1885.6.9) 베트남에 대한 중주권을 완전히 상실하기에 이른다.³¹⁾ 특히, 청불전쟁에서의 패배는 양무운동을 통해 건립된 중국의 근대적 해군이 무력하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적실한 조직과 훈련이 결여되고 전술이 부재한 상황에서 근대적 함선의 증강만을 추구하였던 양무운동의 비효율성이 노출되었던 것이다.³²⁾

청불전쟁 이후 캄보디아 및 버마 등이 프랑스에 의해 차례로 중국 중심의 조공체제에서 이탈해 나가는 상황에서 청일전쟁의 패배는 양무운동의 무기력함을 확인해 주는 최후의 사건이었다. 특히, 조선이 북경의 배후인 동북삼성에 접하고 있다는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해 중국의 생존에 직결된 전략적 지역이었음을 감안한다면, 대조선 중주권 상실은 중화프로그램의 한축인 조공체제가 붕괴되었다는 점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중국의 국가안보가 외부로부터의 직접적 위협에 노출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³³⁾

이런 맥락에서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 일본의 대조선 영향력 확대 정책에 중국이 민감하게 대응한 것도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884년 조선내 친일세력의 쿠데타(甲申政變)를 진압한후 이홍장은 원세개(袁世凱)를 통해 청일전쟁직 전까지 10여년에 걸쳐 강력한 대조선 개입정책을 수행하기도 하였던 것이다.³⁴⁾ 그러나 1894년 조선의 동학운동을 둘러싼 청일간 충돌은 결국 중국의 북양함대가 압록강 유역에서 일본함대에 의해 무기력하게 궤멸되고 이듬해 2월 산둥반도의 위해위가 일본군에 점령당함으로써 일본의 압승으로 이어졌으며, 그 결과 중국은 조선에 대한 중주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³⁵⁾

31) 청-프랑스 구체적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郭廷以, 『近代中國史綱 上冊』, 香港: 香港中文大學, 1982, 239-51쪽 참조.

32) Fairbank et al, *East Asia*, 606쪽.

33)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명청대의 대조선 군사개입을 설명한 자료는 최소자, "임진왜란시 명의 파병에 관한 논고," 『동양사학』 11집, 1977;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서울: 역사비평사, 1999; Hongseo Park, *A Neorealist Esplanation of Chinese Military Intervention in the Korean Peninsula: Power Shifts, Threat Perceptions and Rational Choice*, Ph. D dissert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05 참조.

34) 청조의 대조선개입정책에 대해서는 권혁수, 『19세기말 한중 관계사 연구』, 서울: 백산자료원, 2000, 229-30쪽 참조.

35) 청일전쟁의 구체적 전개과정은 Immanuel C. Y. Hsu, "Late Chi'ing foreign relations,

청일전쟁의 패배로 인해 중화프로그램의 유지 및 강화라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되었던 양무운동은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 양무파들은 비록 서양기술의 습득이라는 보조가설을 도입해 위기에 직면한 중화프로그램의 보정을 시도하였으나 오히려 그 위기를 심화시키고 만 것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중화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는데, “변법”은 그 노력의 일환이었다.

2. 무술변법의 시도 및 실패

1895년 4월 17일 체결된 시모노세키조약은 중국에게는 매우 가혹한 의무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조선에 대한 종주권 상실은 둘째치고라도 일본에 대한 2억달러의 배상금 지불, 대만, 요동반도 및 팽호도의 할양 등은 중화프로그램의 위기가 그 정점에 달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뿐만 아니라, 시모노세키조약 직후 서구열강은 삼국간섭을 통해 일본의 요동영유를 무력화시키고 이를 기회로 중국에서의 영향력 확보를 추구하면서 중국의 엘리트계층으로 하여금 서구제국에 의해 중국이 “과분(瓜分)”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까지도 갖게 하였다.³⁶⁾

강유위(康有爲)가 주동이 된 소위 “변법(變法)” 운동은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의 대응으로서 시작되었다. 청일전쟁 직후 강은 법제도 개혁을 건의하는 일련의 “공거상서(公車上書)”를 제출하고 서양의 기술만을 중국에 접목하려는 양무파의 경직된 중체서용론에서 탈피해서 보다 근본적인 법제도 개혁을 주장하였다.³⁷⁾ 이를 위해, 강은 공자 및 유교경전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서 변법의 추진을 사상적으로 정당화하려고

1866-1905.” in John K. Fairbank and Kwang-Ching Liu,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11 Late Ch'ing, 1800-1911, Part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106-9쪽 참조.

36) 삼국간섭을 통해 러시아는 여순과 대련항을, 프랑스는 광주만을, 독일은 교주만을, 그리고 영국은 위해위와 구룡을 각기 조차하였다. 당시 스페인과의 전쟁에 전력을 추구하고 있던 미국은 중국의 영토를 직접 조차하기 보다 중국에 있어 제국가들의 이해를 평등하게 규정한 “문호개방” 정책을 주장함으로써 자신을 손해를 최소화하려고 하였다. 청일전쟁후 중국의 과분위기에 대해서는 앞의 글, 109-15쪽 참조.

37) 물론, 강유위의 사상이 비록 서학의 범위를 확대시켰다고 할 수 있으나 논리적 구조면에서는 ‘중학을 근본으로 삼고 서학을 참고로 한다’는 주장에서 나타나듯, 양무파의 중체서용론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민두기, 『중국근대개혁운동의 연구』, 서울: 일조각, 1996, 40-42쪽 참조.

하였다. 예를 들어 강은 신위학위경고(新學僞經考: 1891)와 공자개제고(孔子改制考: 1899) 등의 저서에서 현재의 유교경전은 송대의 신유학과에 의한 위작이며, 공자의 사상에는 법제도 개혁뿐만 아니라 진보사상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변법운동을 사상적으로 뒷받침하였다.³⁸⁾

결국, 강유위는 1898년 6월 그의 개혁사상에 대한 광서제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백여일에 걸친 소위 “무술개혁(戊戌改革)”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실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 개혁을 통해 변법파는 정치, 경제, 군사, 교육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근대적인 형태로 법제도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양무운동보다 기일층 확대된 형태로 중화프로그램의 보정시도를 추진하게 된다. 예를 들어, 변법파는 전통적인 6부체제의 근대적 내각형식으로의 전환, 의회 및 헌법의 건립, 과거제의 개혁, 근대학교의 설립, 팔기군의 개혁 등 사회전반에 걸친 법제도 개혁을 추진하였는데, 이것은 서양의 과학기술만을 중화프로그램에 접목하려는 양무운동에 비해 중화프로그램의 “보호대”를 더욱 확장시키는 시도였던 것이다.³⁹⁾

그러나, 민권 및 헌법을 기반으로 정치제도를 개혁하려는 변법파의 시도는 무술개혁의 핵심인 동시에 그것의 실패를 전조하는 “양날의 칼”이 되었다. 즉, 민권 및 헌법을 기반으로 정치구조를 개혁하려는 변법파의 개혁정책은 양무운동에 비해 중화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확대된 보정시도라 할 수 있으나, 보는 시각에 따라 중화프로그램의 또다른 중핵인 군주제를 수정하려는 시도로도 간주될 수 있었던 것이다.⁴⁰⁾ 따라서, 전술한 연구프로그램의 금지된 문제해결법(negative heuristics)이란 규칙에 의해 이러한 시도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무술변법파의 시도가 청조내 보수파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다. 서태후를 위시한 보수파의 저항은 말

38) Hao Chang, “Intellectual change and the reform movement, 1890-8,” in Fairbank and Liu,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11, 287-90쪽.

39) 앞의 글, 325-27쪽.

40) 민두기에 따르면, 변법파가 주장하는 “민권”은 서구적 의미의 민권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신사충이 주도하는 구국의 방법론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무술개혁의 핵심은 군주제의 약화가 아니라 황제의 개혁자문기구로 제도국(制度局)을 설립하고 그것을 통해 강력한 황권하에 부국강병을 추진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에 대해 민두기, 「중국근대개혁운동의 연구, 45-46, 213-14쪽 각각 참조.

할 것도 없이 강유위의 지지자였던 옹동화(翁同龢), 장지동 등의 청류파 역시 공자개 제고에서 드러난 강의 수정주의적 유교해석을 비판하고 전통적인 유교해석에 기반한 중화프로그램의 보정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즉, 이들은 강이 주장하는 민권 및 헌법을 통한 정치개혁을 황제의 권한을 축소하는 反황권적인 시도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중화프로그램의 보정시도가 아니라 중화프로그램을 붕괴시키려는 급진적 시도로 인식하였던 것이다.⁴¹⁾ 결국, 서태후를 중심으로 한 수구파는 1898년 9월 21일 쿠데타를 통해 무술변법파를 타도하고 실권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중화프로그램의 또 다른 보정시도였던 무술변법은 실패하게 되었다.

3. 의화단 운동의 전개와 실패

무술개혁이 좌절된 후 서태후를 중심으로 한 수구파가 청조의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는 상황속에서 의화단 운동이 발생하였다. 의화단은 아래로부터의 배외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당시 수구파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결부되면서 중화프로그램의 고수를 위한 급진적 배외운동이 되었던 것이다.⁴²⁾ 이런 측면에서 의화단 운동이 반동적인 성격을 띠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황전개였다. 즉, 의화단 운동의 주도세력은 중화프로그램이 직면한 위기의 원인을 중화프로그램의 외부변인(서구제국)으로만 한정했기 때문에 양무운동 및 무술변법과는 달리 중화프로그램 자체의 보정노력은 생략했던 것이다.⁴³⁾

사실, 의화단 운동은 1860년대부터 빈발하기 시작하였던 “반기독교운동(教案)”과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제 2차 아편전쟁이후 북경조약에 의거 기독교의 내지포교가 승인되고 이에 따라 선교사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세력이 세력을 확대해 나가자 지방의 기독교인 세력이었던 신사층의 주도 혹은 지지하에 민간부문의 반기독교운동이 벌어지게 되었다.⁴⁴⁾ 특히, 청일전쟁 직후 열강에 의한 중국의 과분 위기가 현실

41) 신승하 외, 『19세기 중국사회』, 271-75쪽. 물론, 이러한 사상적 반대이외에 무술변법파를 반대하는 이유에는 기독교인 세력의 반발이라는 현실적인 이유 역시 중요하다. 즉, 개혁을 통해 전통적인 기독교인 상실에 위기의식을 느낀 관리, 군대, 그리고 최종적으로 서태후의 반발이 그것이다. Chang, "Intellectual change and the reform movement, 1890-8," 327-28쪽.

42) 초기 의화단은 청조에 저항하는 양상을 띠기도 하였으나 1899년 가을부터 청조와 연계되면서 “부청멸양(扶清滅洋)”의 구호를 공식화하였다. Fairbank et al, *East Asia*, 635쪽.

43) 의화단운동의 반동적 성격 및 그 이유에 관해서는 李劍農, 「維新運動的反動」, 吳相湘 外『中國近代史論叢: 維新與保守』, 第一輯, 第七冊, 臺北: 正中書局印行, 1973, 171-76쪽 참조.

로 다가오자 의화단 세력은 1898년 산둥, 직예지역을 중심으로 화북지역 전역으로 그 세를 확대하여 1900년에 들어서 북경, 천진에까지 진출하게 된 것이다.

청조는 의화단에 대해서 강경책과 유화책을 동시에 유지하는 양면적인 대응을 취하였다. 특히,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수구파들은 의화단의 강력한 진압을 주장하는 양무파들의 주장을 무력화시키고 의화단을 이용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고 하였다. 특히, 1900년 1월 수구파들의 광서제 폐위 음모가 열강에 의해 제지되고, 열강이 광서제의 복권을 요구한다는 “귀정조회(歸政照會)”가 접수되자 서태후는 6월 21일 의화단 진압을 위해 결성된 8개국 연합군에 대해 선전포고를 결정하기에 이른다.⁴⁴⁾ 그러나 8월 연합군이 천진에 이어 북경을 함락함으로써 수구파의 시도는 실패하고 말았다. 그 이듬해, 연합군 상호간 이해관계의 불일치로 인해 지연되던 강화협상(辛醜條約: 1901.9.17)이 타결됨으로써 의화단 운동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

의화단 운동의 실패는 청조에게는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타격이었다. 대외적으로 열강의 의한 중국분할의 가능성이 한층 증가되었다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대내적으로도 청조의 정치권력은 급격히 약화되었다. 특히, 1900년 6월 서양과 지방사이에 체결된 “동남호보(東南互保)”에서 보여지듯, 양무파 지방관료들이 중앙정부의 통제권에서 벗어나 자체적으로 열강과의 외교교섭을 진행했다는 사실은 중앙의 대지방 통제권이 와해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⁴⁵⁾ 결국 의화단 운동을 통해 중화프로그램의 반동적 유지를 의도하였던 청조의 시도는 실패하였으며, 오히려 중화프로그램의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중화프로그램의 유용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

44) 이런 맥락에서 교안운동은 단순히 종교적 갈등이 아니라 경제, 사회적 갈등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교회세력이 지방에서 자신들의 조매권 및 치외법권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고 또한 이를 통해 세계문체에 직면한 지방하층민들의 호응을 얻어나가는 상황은 지방 관료와 신사계층에게는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김배철, “교안과 의화단,” 서울대학교 동양사학연구실 편, 『강화중국사VI』, 48-53쪽 참조.

45) 귀정조회가 수구파 재의(載漪)의 조작으로 드러나자 서태후가 바로 선전포고를 철회했다는 사실은 광서제-열강의 연결에 대한 서태후의 민감한 반응을 반증한다. 앞의 글, 73쪽.

46) 동남호보의 주체는 광둥의 이홍장, 남경의 유곤일, 무창의 장지동, 그리고 산둥의 원세개로서 이들은 북상하라는 중앙의 명령을 황제의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관할지역내에서 의화단으로부터 외국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할 것임을 열강측과 합의하였다. Hsu, “Late Ch'ing foreign relations, 1866-1905,” 123-24쪽.

다는 것은 자연스런 상황전개였다. 즉, 소극적 의미에서의 생존의 문제와 적극적 의미로서의 부국강병이란 문제에 대해 중화프로그램이 더 이상 문제해결능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회의가 식자층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물론, 의화단 운동 직후, 양무과가 주도한 개혁(新政)이 추진되기도 하였으나, 청조의 생존을 위한 미봉책이란 성격이 강하였기 때문에 중화프로그램의 진보적 문제변환과는 거리가 먼 정책이었다.⁴⁷⁾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의화단 운동의 실패 직후, 무기력한 중화프로그램의 폐기를 선언하고 전혀 새로운 방식의 문제해결책을 시도하는 세력이 등장했다는 것은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IV. 혁명세력의 출현 및 중화프로그램의 붕괴

1. 공화혁명파의 등장

공화정을 주장하는 혁명파의 등장은 중화프로그램을 폐기하고 전혀 새로운 프로그램을 주창하는 세력의 출현을 의미하였다. 그들은 마치 과학혁명시기에 “꺼꾸로 된 렌즈를 낀 과학자”들과 같이 기존 중화프로그램의 주체세력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관을 소유하였다.⁴⁸⁾ 즉, 이들은 1890년대를 통해 전통적인 중화프로그램이 “반제”라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전통적 가치와 신념으로부터 멀어지는 “지적소외”를 경험한 인물들이었다.⁴⁹⁾ 그 결과 혁명파는 국민주권에 기반한 공화정을 새로운 프로그램의 핵으로 상정하고 이를 위해 혁명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47) 신정의 정권안보적 성격은 Chuzo Ichiko, “Political and institutional reform, 1900-11,” in Fairbank and Liu,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11, 413쪽 참조.

48) 쿤에 따르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용한 과학자들은 데이터에 대한 단순한 재해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그것을 관찰하게 된다. 예를 들어, 흔들리는 돌이관 동일한 대상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속박상태의 낙하(constrained fall) 현상을, 갈릴레오는 진자(pendulum)를 관찰하게 된다는 것이다. Kuh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121-22쪽.

49) Maurice Meisner, *Mao's China and After: A History of the People's Republic*, New York: The Free Press, 1986, 10쪽.

일반적으로 공화혁명파의 등장은 1894년 11월 손문(孫文)에 의해 창설된 흥중회(興中會)가 그 계기라고 할 수 있으나, 본격적인 활동은 의화단 운동으로 청조체제의 허약성이 극적으로 노출되는 1900년 이후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저항운동(拒俄)이 일어나는 1903년은 혁명파들의 본격적인 활동기점이 되었다. 당시 러시아는 의화단 진압을 명분으로 만주지역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었으나, 청조와 약속한 병력철수 시한을 지키지 않은 상황이었다. 혁명파들은 이러한 상황을 청조의 무능력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계기로 간주하고 대러시아 투쟁과 반청을 동일시하였던 것이다.⁵⁰⁾

이와 같은 상황속에서 1905년 손문이 주도한 중국동맹회(中國同盟會)의 창설은 중국내외의 혁명세력들이 보다 단합된 형태로 혁명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혁명파는 손문이 기초한 "삼민주의(三民主義)"를 기반으로 중국혁명의 성격을 청조타도라는 민족주의적 혁명, 공화체제의 건립을 목표로 하는 민권주의적 혁명, 그리고 사회적 정의를 지향하는 민생주의적 혁명으로 규정하면서 중화프로그램과의 결별을 공식화하였다.⁵¹⁾ 또한, 이들은 양계초(梁啟超)가 중심이 된 체제내 개혁론자들(중화프로그램의 고수세력)을 강력히 비판하고 혁명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양계초는 혁명발생시 유혈사태로 인해 상당수 국민이 죽을 것이며, 이로 인해 열강의 간섭이 더욱 심해져 중국에는 전제정치가 다시 수립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혁명파는 혁명시 다소의 유혈사태는 불가피하며, 무기력한 청조의 타도는 오히려 서구열강의 간섭을 막는 전환기가 될 것임을 주장하였던 것이다.⁵²⁾

한편, 혁명파들의 활동 및 이들과 연계된 신군(新軍)의 무장반란 기도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1911년 10월 10일 무창에서의 성공적인 반란을 기점으로 각성들이 독립을 선포함으로써 결국 1912년 1월 1일 손문을 임시대총통으로 하는 중화민국이 건립되었다. 의심할 바 없이 이러한 신해혁명(辛亥革命)은 중화프로그램의 핵심중 하나인 봉건군주제의 종결을 의미하였다. 아편전쟁이후, 반제 및 중국의 생존이라는 문제 해결을 위해 중화프로그램은 일련의 임시방편적 문제해결책을 제시하였으나 결국 실

50) 혁명파의 활동 기점에 대해서는 민두기, 『신해혁명사』, 서울: 민음사, 1994, 25-30쪽 참조.

51) 사실, 혁명파들은 삼민주의중 민족주의를 가장 상위로 간주하였다. 손문 역시 민주주의(민권) 및 사회적 평등(민생)보다 부강한 중국의 건설을 최우선의 목표로 상정하였다. Michael Gasster, "The Republican Revolutionary Movement," in Fairbank and Liu,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11*, p. 493.

52) 체제내 개혁파와 혁명파의 논쟁에 대해서는 민두기, 『신해혁명사』, 55-66쪽 참조.

패함으로써(퇴행적 문제변환) 프로그램 자체가 붕괴되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혁명 세력은 비록 중화프로그램의 붕괴에 있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것과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원칙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중화프로그램의 붕괴는 그 자체의 문제해결능력의 빈약에 기인했으나 그 붕괴를 판결했던 세력은 공화혁명파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⁵³⁾

2. 5. 4 운동 및 사회주의 이념의 수용

사실, 신해혁명은 2천 여년간 지속되었던 중화프로그램을 붕괴시켰다는 점에서는 성공적인 혁명이었으나 이후의 정치적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미완성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양계초가 우려했던 대로 혁명주도세력은 분열되었으며, 지방군벌의 대두와 원세개의 전제기도, 그리고 러시아의 외몽고 독립지원 등 새로운 공화체제는 안팎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⁵⁴⁾ 뿐만 아니라 신해혁명은 중화프로그램의 정치체(군주제)를 붕괴시키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그것의 사상적 핵심인 유교를 극복하는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겨두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1910년대 중후반 일부 지식인이 주도한 신문화 운동 및 보다 광범위한 대중이 참여했던 1919년 5.4 운동은 중화프로그램의 제도적 붕괴뿐만 아니라 사상적 붕괴를 촉진하는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⁵⁵⁾

1915년 “신청년(新靑年)”을 창간함으로써 신문화운동의 주도자가 된 진독수(陳獨秀)에 따르면, 양무운동, 변법 및 신해혁명과 같은 단순한 정치혁명은 사회변혁에 아무런 효과가 없으며, 낡은 전통 및 문화와 결별하려는 의식상의 전환이 사회변혁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었다. 이를 위해 진독수는 서구적 가치의 핵심인 “과학”과 “민주”

53) Gasster, "The Republican Revolutionary Movement," 516쪽. 이와는 대조적으로, 코헨은 신해혁명은 신정을 통해 중앙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청조의 입장에 자신들의 기득권의 침해를 우려한 지방 기득권층(향신)의 대항이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손문이 주도한 혁명파의 역할은 매우 축소될 수 있다. Cohen, *Discovering History in China*, 159-61쪽.

54) 민두기, 『신해혁명사』, 64쪽.

55) 이런 의미에서 민두기는 신해혁명을 1차 민국혁명, 5.4 운동을 2차 민국혁명으로 구분하고, 중국혁명은 1, 2차 혁명을 거치면서 形과 質이 결합되는 형태로 전개된다는 점을 논파하고 있다. 민두기, 『민국혁명론: 현대사의 기점으로서의 신해혁명과 5.4 운동』서울대학교 동양사학연구실 편, 『강좌중국사VI』, 113-14쪽 참조.

의 양대 개념을 통해 중화프로그램의 사상적 기반인 유교문화에 대항하려고 하였다. 진독수 이외에 호적(胡適), 노신(魯迅) 등도 유교문화의 반동성을 비판하고 전통과의 사상적 단절을 주장함으로써 신문화운동의 주역이 되었다.⁵⁶⁾

한편, 신문화 운동이 일부 지식인의 주도로 추진되었다면, 1919년 5·4운동은 그와 같은 가치의 변혁이 대중적 차원으로 확대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⁵⁷⁾ 주지하듯, 5·4운동은 1차 대전 종결후 산동의 권익이 일본으로 양도되자 이에 대한 대중적 반발로 발생하였다. 특히, 상해의 “삼파투쟁”(三罷鬭爭: 罷課, 罷市, 罷工)에서 보여지듯 5·4운동의 주도세력은 신문화 운동시기와는 달리 학생, 상인 및 노동자로 확대되는 양상을 명확히 보이고 있었다.⁵⁸⁾ 또한, 5·4운동의 주체세력들은 서구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신문화운동시기에 비해 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즉, 신문화운동가들이 중국의 전통에 대한 대립각으로 과학과 민주주의라는 서구의 핵심적 가치를 추종하였다면, 5·4운동의 주체세력은 산동 권익의 대일본양도에서 드러났던 서구국가들의 제국주의적 행태에 실망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5·4운동의 주체세력들은 단순히 서구적 가치의 수용이 아니라 서구의 제국주의적 속성을 함께 비판할 수 있는 대안적 사상에 대해 탐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5·4운동 직후 지식인 계층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이념에 대한 학습 및 전파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1917년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한 소련이 제정러시아가 향유하던 중국에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이른바 “카라한선언”(1919.7/1920.9)을 발표하자 사회주의 이념은 이전의 중화프로그램의 잔재 뿐만 아니라 서구제국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적 프로그램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였다. 결국 사회주의세력은 점진적 개혁주의자 및 무정부주의

56) 신문화운동에 대해서는 서진영, 『중국혁명사』, 64-67쪽 참조. 물론, 신문화운동의 주도세력간에는 차이가 존재했다. 예를 들어, 호적이 실증주의적 방법(a piece-meal experimental methodology)을 수용해 점진적인 사회개혁을 주장했다면, 결정론적 다윈이즘(crude Darwinism)을 수용했던 진독수는 보다 급진적인 개혁을 주장했다. 이에 비해 노신은 전통의 실체 및 사상에 대한 우상파괴적(iconoclasm) 태도를 취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Benjamin I. Schwartz, “Themes in intellectual history: May Fourth and after,” in John K. Fairbank, ed.,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12, Republican China 1912-1949, Part I,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426-27쪽 참조.

57) 胡適, 『紀念五四』, 『中國近代史論叢』, 第一輯, 第八冊, 臺北: 正中書局, 1973, 120-21쪽.

58) 삼파투쟁에 관해서는 강명희, 『5·4운동』, 『강좌중국사VI』, 211-16쪽 참조.

와의 사상적 논쟁을 거치고 코민테른의 지원을 받아 1921년 중국공산당을 창당하게 되었던 것이다.⁵⁹⁾ 의심할 바 없이 이와같은 사회주의 세력의 출현은 국민당과 더불어 중화프로그램의 붕괴후 대안적 프로그램의 후보군들이 출현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즉,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건립으로 종결되는 중국혁명이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음을 의미하였던 것이다.

V.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교, 봉건제 및 조공관계를 각각 사상, 정치 및 외교적 핵심 가정으로 전제하는 중화프로그램은 1840년 아편전쟁을 기점으로 서구제국주의와의 접촉이라는 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이들 서구열강들은 중화프로그램의 핵심가정을 공유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였는데, 이것은 곧 전통적 중화프로그램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사례”가 출현했음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내 제 세력들은 중화프로그램의 유지를 위해 각종의 보조가설을 도입하는 등의 프로그램 보정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것은 마치 패러다임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사례가 출현할 때 패러다임내의 “정상과학자”들이 패러다임을 즉각 폐기하기 보다는 그것을 임시적 방법으로 수정함으로써 이론과 사실의 부정합을 해결하려는 시도와 유사하였다.⁶⁰⁾ 예를 들어, 양무파들이 중체서용의 사상을 기반으로 서양의 과학기술을 도입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였고, 무술변법파는 봉건군주제를 입헌군주제로 변화시키는 정치제도의 변화까지도 추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화프로그램의 보정시도들은 실제적 문제해결에 실패함으로써 그 성격이 기본적으로 퇴행적이었다는 것이 점차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양무운동은 유구, 베트남, 그리고 조선의 종주권 상실로 이어지는 조공체제의 붕괴를 막지 못했으며, 무술변법 역시 수구파들의 내부적 저항으로 인해 실패하게 되었다. 곧이어 의

59) 중국의 사회주의 사상의 수용과정에 대해서는 서진영, 『중국혁명사』, 80-88 쪽 참조.

60) Kuh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72쪽.

화단을 이용해 중화프로그램을 유지하려던 수구파의 반동적 행태는 결국 서구제국주의에 의한 과분의 위기까지 초래함으로써 중화프로그램은 이제 더 이상 자기보정의 동력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다.

공화혁명의 논리는 이와 같이 중화프로그램의 보정시도가 모두 실패하는 과정속에서 출현하였다. 이들은 국민주권을 기반으로 한 공화체제를 주창함으로써 중화프로그램의 정치적 핵심전제인 군주제를 전면적으로 거부했다는 측면에서 보황파와 같은 체제내 개혁세력과 동일시될 수 없는 이질적인 존재였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결국 1911년 신해혁명은 중화프로그램의 정치제도적 붕괴를 의미하였다. 곧이어 1910년대 중후반 신문화운동 및 5·4운동을 거치면서 중화프로그램의 유교라는 사상적 기반까지 무너짐으로써 수천년간 지속되어온 중화프로그램은 완전히 붕괴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중화프로그램의 붕괴가 곧 대안적 프로그램의 등장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등장하기까지 30여년간의 혁명기 동안 제 세력들(군벌, 국민당, 공산당)은 상호경쟁을 통해 대안적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⁶¹⁾ 이러한 경쟁속에서 중국공산당은 다른 세력들에 비해 반제 반봉건이란 문제해결에 있어 상대적으로 우월한 문제해결능력을 보여줌으로써 결국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건립에 성공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건립은 명확히 중화프로그램의 대안적 프로그램이 등장하였음을 의미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중국공산주의 프로그램은 이후 냉전기 중국의 생존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의 중화프로그램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보정을 추진해 나가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참고문헌

강명희, 「5·4운동」, 서울대학교 동양사학연구소실 편, 『강좌중국사VI』, 서울: 지식산

61) 페러다임 전환의 심리변인을 강조한 쿤 역시 페러다임간 혁명기에서 만큼은 각 개별이론이 상호 합리적 경쟁을 벌인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포퍼의 논리에 동의하고 있다. Thomas S. Kuhn, *The Essential Tens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7, 271-72.

- 업사, 1997.
- 권혁수, 『19세기말 한중 관계사 연구』, 서울: 백산자료원, 2000.
- 김배철, “교안과 의화단.” 서울대학교 동양사학연구실 편, 『강좌중국사VI』, 서울: 지식산업사, 1997.
- 민두기, 「중국사 시대구분론의 사회적 배경과 그 의의 및 전망」, 민두기 편, 『중국사 시대구분론』,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4.
- _____, 『신해혁명사』, 서울: 민음사, 1994.
- _____, 『중국근대개혁운동의 연구』, 서울: 일조각, 1996.
- _____, 「민국혁명론: 현대사의 기점으로서의 신해혁명과 5.4 운동」서울대학교 동양사학연구실 편, 『강좌중국사VI』, 서울: 지식산업사, 1997.
- 박혁순, 「양무운동의 성격」, 서울대학교 동양사학연구실 편, 『강좌 중국사 V』, 서울: 지식산업사, 1989.
- 서진영, 『중국혁명사』,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2.
- 신승하, 『근대중국의 서양인식』, 서울: 고려원, 1985.
- _____, 『중국근대사』, 서울: 대명출판사, 2000.
- 신승하·유장근·장의식, 『19세기 중국사회』, 서울: 신서원, 2000.
- 이춘식, 『중화사상의 이해』, 서울: 신서원, 2003.
- 조병한 외, 「청대 중국의 대통일적 중화체계와 대외인식의 변동: 아편전쟁시기까지」 (주제토론), 아시아문화/ 10호, 49-50쪽 참조.
- 최소자, “임진왜란시 명의 파병에 관한 논고,” 『동양사학』11집, 1977;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서울: 역사비평사, 1999.
- 최희재, 「중화제국질서의 동요」, 서울대학교동양사학연구실 편, 『강좌 중국사 V』, 서울: 지식산업사, 1989.
- 표교열, 「제1,2차 중영전쟁」, 서울대학교동양사학연구회 편, 『강좌 중국사 V』, 서울: 지식산업사, 1989.
- 田中正俊, 「중공에서의 자본주의맹아론」, 민두기 편, 『중국사시대구분론』,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4.
- 馮桂芬, 『校邠廬抗議』.
- 梁伯華, 『近代中國外交의巨變』, 香港: 商務印書館, 1990.

- 郭廷以, 『近代中國史綱』上冊, 香港: 香港中文大學, 1982.
- 胡適, 「紀念五四」, 『中國近代史論叢』, 第一輯, 第八冊, 臺北: 正中書局, 1973.
- 李劍農, 「維新運動的反動」, 吳相湘 外 『中國近代史論叢: 維新與保守』第一輯, 第七冊, 臺北: 正中書局印行, 1973.
- 魏源, 『海國圖地』卷 24.
- 『毛澤東選集』, 北京: 人民出版社, 1952, 第二卷.
- Bull, Hedley, *The Anarchical Society: A Study of Order in World Politics*, London: The Macmillan Press, 1979.
- Chang, Hao, "Intellectual change and the reform movement, 1890-8," in Fairbank and Liu,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11, Late Chi'ing, 1800-1911, Part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 Cohen, Paul A. *Discovering History in Chin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4.
- Fairbank, John. K. "A Preliminary Framework," in John. K. Fairbank. ed., *The Chinese World Orde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 Fairbank, John K., Edwin O. Reischauer, and Albert M. Craig, *East Asia: Tradition and Transformation*,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73.
- Gasster, Michael, "The Republican Revolutionary Movement," in Fairbank and Liu,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11, Late Chi'ing, 1800-1911, Part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 Hsu, Immanuel C. Y., "Late Chi'ing foreign relations, 1866-1905," in John K. Fairbank and Kwang-Ching Liu,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11 Late Chi'ing, 1800-1911, Part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 Ichiko, Chuzo, "Political and institutional reform, 1900-11," in Fairbank

- and Liu,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11, Late Chi'ing, 1800-1911. Part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 Jones, Susan Mann and Philip A. Kuhn, "Dynastic decline and the roots of rebellion," in John K. Fairbank and Denis Twitchett,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10 Late Chi'ing, 1800-1911, Part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8.
- Kuhn, Thomas S.,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1974.
- _____. *The Essential Tens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7.
- Mancall, Mark, "The Chi'ing Tribute System: an Interpretive Essay," in John. K. Fairbank. ed., *The Chinese World Orde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 Meisner, Maurice, *Mao's China and After: A History of the People's Republic*, New York: The Free Press, 1986.
- Lakatos, Imre, "Falsification and the Methodology of Scientific Research Programmes," in Imre Lakatos and Alan Musgrave, eds., *Criticism and the Growth of Knowledge*,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 Ohja, Ishwwer C., *Chinese Foreign Policy in an Age of Transition*, Boston: Beacon Press, 1971.
- Park, Hongseo, *A Neorealist Esplanation of Chinese Military Intervention in the Korean Peninsula: Power Shifts, Threat Perceptions and Rational Choice*, Ph. D dissert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05.
- Popper, Karl R., *The Myth of the Framework*, ed., M.A. Notturmo, Lodon: Routledge, 1997.
- Schwartz, Benjamin I., "Themes in intellectual history: May Fourth and

- after," in John K. Fairbank, ed.,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12, Republican China 1912-1949, Part I,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 Teng, Ssu-Yu and John K. Fairbank, *China's Response to the West: a Documentary Survey 1839-1923*, New York: Atheneum, 1970.
- Waltz, Kenneth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79.
- Yang, Lien-sheng, "Historical Notes on the Chinese World Order," in John K. Fairbank, ed., *The Chinese World Orde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 Yen-P'ing, "Changing Chinese views of Western relations, 1840-95," in John K. Fairbank and Kwang-Ching Liu,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11 Late Ch'ing, 1800-1911, Part 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Abstract

The Chinese Response to the Political Crisis in the Late Qing Empire: Sino-centrism and its Degenerative Problemshift

Park, Hong-se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ain the Chinese response to the "Western Impact" during the late Qing period. To meet this, this article introduces the Lakatosian term "research program" defined as a series of theories sharing a core theoretical assumption but having different auxiliary hypotheses. With this term, Imre

Lakatos argues that a theory is not falsified by an empirical counter-evidence. Rather, when confronted with "anomalies," he says, scientists generally attempt to save their theories in danger by adding various auxiliary hypotheses to the core assumption. If such an effort succeeds, the shifts of a research program can be labelled as "progressive," or "degenerative" otherwise.

In this regard, Qing's response to the Western Impact can be explained the same way scientists tries to save their theories in danger. That is, the Qing government and reformers sought to save "Sino-program" by introducing various auxiliary hypotheses. For example, right after the second Opium War in 1860, a reform group called *Yangwupai* pursued Western technology for "Self-Strengthening." Also, after the Sino-Japanese War in 1895, a political faction led by Kang Youwei attempted to reform the political organization including constitutionalization within the Confucious order. However, such attempts did not succeed in achieving the goal of self-strengthening due to the degenerative characteristics embedded in themselves. As a result, revolutionaries came to appearance. They suggested an alternative method for Self-Strengthening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Republic state instead of ad hoc adjustments to the Sino-program. Under this circumstance, the Sino-program had finally broken down in 1911.

Key Words : Research Program, Western Impact, Late Qing Reform, 1911 Revolution